

두 공동체 소속 문제로 본 그리스도인 학자의 정체성*

강 영 안**

논문초록

이 글은 ‘그리스도인 학자’의 정의로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그리스도인이고 학자인 사람, 둘째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는 사람, 셋째 ‘기독교 학문’을 하는 사람. 이 가운데 두 번째 정의가 현실적으로 가장 합당한 정의라는 주장을 펼친 다음, 이 글의 주요 관심사인 두 공동체, 곧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와 학문 공동체인 대학이나 연구소에 이중적으로 소속된 것이 그리스도인 학자에게 어떤 문제를 낳는지를 공동체 구성 조건들을 통해서 논의한다. 여기서 관심을 둔 것은 신앙 공동체와 학문 공동체의 제도적 측면보다는 이 두 공동체에서 학문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곧 학자와 신자의 마음이다. 마음에 관심을 둘 때, 두 공동체 사이의 접점과 갈등의 지점이 등장한다는 것이 이 글이 주장하는 주요 논제 가운데 하나이다. 결론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학자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규정한다.

주제어: 기독교 학문, 그리스도인 학자, 신앙과 학문, 학문의 윤리, 신앙의 윤리

* 이 글은 2013년 5월 11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렸던 기독교문학회에서 ‘그리스도인이 학자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기초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다.

**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2013년 5월 30일 접수, 6월 27일 최종수정, 8월 19일 게재확정

I. 서론

국내에서 ‘기독교 학문’, ‘기독교 대학’을 얘기하기 시작한지가 1980년대 초라고 보면, 이미 이 논의가 시작된 지가 30년이 넘었다. 그 이전에도 이미 기독교 재단이 세운 대학이 있었고 그 뒤에도 새로운 대학들이 세워졌다. 하지만 기독교 재단이 세운 대학들은 교육을 수단으로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미션 스쿨’(mission school)이었다. 이 점에서 대학은 교회의 연장선에 있었다. 기독교 계통의 대학들이 연구와 교육 내용이 ‘기독교적’이어야 하고 이런 점에서 교회와는 구별되는 ‘기독교 대학’(Christian college)이어야 한다는 의식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시작된 80년대에야 우리나라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기독교세계관동역회’의 전신인 ‘기독교학문연구회’와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가 80년대 조직되면서 대학바깥에서, 대학 구성원들을 향해 이러한 의식을 갖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둘러보면 40여개의 기독교 계통 국내 대학들은 ‘기독교 대학’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미션 스쿨’의 범주에 머물고 있다. 50년대 칼빈학교로 시작해서 70년대 초 ‘고려신학대학’으로 정식 대학으로 출발한 고신대학교조차 처음에는 분명한 ‘기독교 대학’을 표방하였지만 몇 년 전부터 신급 제한을 없애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시작한 뒤로는 여타 기독교 계통의 학교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미션 스쿨’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기독교 학문’, ‘기독교 대학’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회의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글에서 현실을 거론하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학문을 하고, 학문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신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고자 한다. 하나의 기관, 하나의 제도로서의 ‘기독교대학’이나 다른 학문과 구별된 체계로서의 ‘기독교학문’이 아니라 기독교 대학에서 일하건, 일하지 않건 간에 스스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이며 학자인 사람이 학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제도와 학문 체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건, 새로운 도구를 발견해 내건, 새로운 규칙에 도달하건 간에 그 가운데 늘 있는 것이 사람이다. 몸이 학문하는 활동에도 개입하지만 사람을 얘기할 때 몸 보다는 역시 마음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마음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지적 추구의 방향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 학자’, 이 가운데도 ‘그리스도인 학자의 마음’에 관심을 두도록 하겠다.

학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해밀턴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독교 학문’이란 개념이나 ‘기독교 대학’이란 개념이 모호하거나 애매하기 때문이 아니라(Hamilton, 2001: 13-21) 사람이, 그 가운데도 사람의 마음이 학문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아우구스티누스나 히에로니무스, 토마스 아퀴나스나 에라스무스, 루터나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나 아브라함 카이퍼, 에티스 질송이나 알빈 플랜팅가 등 탁월한 학자들이 있었지만(Harbison, 1956) 그들의 삶과 학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학자’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는 이 글에서 ‘그리스도인 학자’를 규정짓는 일종의 ‘모형’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 볼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서술은 제외하고 ‘그리스도인 학자’가 담고 있는 내포적 의미를 드러내 볼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인 학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자.

II. ‘그리스도인 학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학자는 우선 무엇보다도 ‘학자’여야 한다. ‘그리스도인 변호사’, ‘그리스도인 의사’가 무엇보다도 ‘변호사’여야 하고 ‘의사’여야 함과 같은 이치이다. 어떤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변호사’가 될 수 없고 의사가 아니고서 ‘그리스도인 의사’가 될 수 없듯이 학자가 아니고서 ‘그리스도인 학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학자’라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 학자’가 아닌 것은 자명하다. 학자이되,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학자’(Christian scholar)는 누구인가? 세 가지 선택지(選擇肢)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1) 그리스도인이면서 학자인 사람
- (2) 그리스도인이고 학자이되, 자신이 하는 학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사람
- (3) 기독교 학문을 하는 사람

첫 번째 정의에 따르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면서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면 누구나 기독교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 사람은 이렇게 정의된 그리스도인 학자의 외연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두 번째 정의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학자의 외연은 첫 번째 정의보다 훨씬 좁아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고 학자 이면서도 자신이 하는 학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학자는 이 정의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고 학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문을 그리스도인답게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세 번째 정의는 그리스도인 학자의 외연을 두 번째 정의보다 훨씬 좁게 잡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학자를 그리스도인 학자 되게 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수행하는 데 있지 않고 ‘기독교 학문’(Christian scholarship)을 하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기독교 학문’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비록 수적으로는 소수라 하더라도 이 학문을 수행하는 학자가 있다면 세 번째 정의가 가장 현실에 가까운 정의일 것이다.

각각의 정의에 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첫 번째 정의와 세 번째 정의를 살펴보자. 첫 번째 정의를 따르면 ‘그리스도인인면서 학자인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인 학자이다. 만일 이 정의가 옳다면 그리스도인 학자의 수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수행하는 학문이 신앙과 무관하다면, ‘학자’라는 이름은 붙일 수 있지만 굳이 ‘그리스도인 학자’라고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다. 세 번째 정의에도 역시 어려움이 있다. 만일 기독교 학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가 ‘기독교 학문’이라 한다면 ‘기독교 학문’이 무엇이고 기독교 학문이 어디 있는가 하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럽이나 미국에서 ‘기독교 철학’이라 부르는 학문 분야가 있고 여러 학자들이 자신을 ‘기독교 철학자’라 부르고 있다. 철학뿐만 아니라 신학에도 예컨대 이슬람 신학이나 유대교 신학과 구별해서 ‘기독교 신학’이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철학’이나 ‘기독교 신학’에 관련되어 학문 활동을 하는 학자를 일컬어 ‘그리스도인 학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의에 따르면 그 밖의 학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독교 수학’, ‘기독교 공학’, ‘기독교 사회학’, ‘기독교 경제학’, ‘기독교 경영학’ 등 확립된 기독교 학문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두 번째 정의가 ‘그리스도인 학자’를 정의하기에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 정의는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다. 첫 번째 정의는 외연이 너무 넓고 두 번째 정의는 외연이 너무 좁다. 따

라서 첫 번째 정의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학자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왜냐하면 그 범위가 워낙 넓고 그 학문의 성격이 기독교 신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정의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학자’라 부를 수 있는 집합의 구성원이 너무 적다. 왜냐하면 현행 학문 가운데 ‘기독교 학문’이라 부를 수 있는 학문이 예컨대 철학이나 신학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육학이나 기독교 음악, 기독교 미술 등으로 ‘기독교 학문’의 영역을 확대한다고 해도 역시 이 분야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두 번째 정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역시 그리스도인이면서 학자인 사람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그리스도인 학자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정의를 따르면 “그리스도인이고 학자이되, 자신이 하는 학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학자”가 ‘그리스도인 학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수행하고자 애쓰는 학자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인 학자를 그리스도인 학자답게 하는 것은 학문을 하되 그리스도인답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리스도인 학자’는 완결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가운데 존립한다. 여기서 문제는 학문을 하되, ‘그리스도인답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뒤에 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III. 두 공동체 소속의 문제

‘그리스도인답게’ 학문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학문하는 사람이면,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처한 현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학문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경우든 둘 다 모두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이다. 학문이나 신앙은 모두 전통을 전제하고 있고, 전통을 이어주는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다(Fuller, 2009; Wolterstorff, 2004). 공동체는 그 속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있고, 그것을 지탱해 주는 규칙들이 있고, 이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과 형성된 전통이 있다. 구성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를 바꿀 수 있고 방향 전환을 시도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통용되는 규칙과 관례와 사용 가능한 자원들의 조건에 매인다. 이 점은 대학이나 연구소와 같은 학문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

인 교회에 적용된다.

‘그리스도인 학자’는 학문 공동체를 통해서 학자가 되기까지 훈련을 받고 그곳에 소속되며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고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 학문 공동체는 여기서 물론 대학을 포함해서 연구소나 좀 더 추상적인 의미에서 지적 작업에 종사하는 지성 공동체를 포함해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학자가 관여된 공동체가 교회와 학문 공동체뿐인가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학자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기도 하고, 동호회나 동창회 등에도 소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 공동체 소속 문제는 지금 논의하는 문제와 관계가 없으므로 일단 제외해 두고 그리스도인 학자가 소속한 신앙 공동체와 학문 공동체, 이 두 공동체의 소속 문제만을 생각해 보겠다. 그런데 물음은, 이 두 공동체 소속이 아무 문제가 없는가, 만일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터툴리안)의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카데미와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함축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인 학자는, 만일 그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오직 하나의 공동체에 소속될 뿐 두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문제 설정 자체를 애초부터 부인할 수 있다(Tertullian, 1994: 246; 강영안, 2010: 7-30). 하지만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거나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면서 학자인 사람(첫 번째 정의 및 두 번째 정의의 첫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와 학자들의 공동체인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속해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공동체에 소속해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 학자에게 두 세계 속에 따로 살면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게 하거나 또는 두 세계의 긴장을 의식하면서 갈등과 긴장 속에 살게 만든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학자인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으면서 교회와 대학을 오갈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상당한 갈등과 긴장을 느끼면서 두 공동체를 오갈 수 있다. 이 상황에 대해 좀 더 관심을 두어 보자.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 예컨대 대학과 가정, 이 두 공동체 소속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자. 대학과 가정 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 있는가? 만일 갈등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갈등인가? 우리는 한 가정의 남편이거나 아내이고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며 자식이기도 하다.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은 그것에 상응하는

헌신을 요구한다. 대학도 나에게 일정한 헌신을 요구한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헌신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헌신은 그 종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일정한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 투자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두 공동체가 요구하는 헌신 사이에 갈등이 가능하다. 학교 연구실에서 계속 앉아 연구 작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놀이 공원에 가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것은 적지 않은 갈등이 될 수 있다. 많은 경우 학자들은 가정에서 오는 요구를 무시한다. 예외가 있지만 연구 활동이 활발할수록, 연구 업적이 많을수록, 가정에 불충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연구를 위해 가정을 희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인간관계, 대화, 아버지로부터 또는 어머니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시간과 에너지 배분의 문제이지 두 공동체의 근본적인 기능과 활동의 성격에서 오는 갈등은 아니다. 가정과 대학은 그 기능이나 성격에서 어떠한 갈등을 빚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 내면으로 들어갈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등장할 수 있다.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 학자로서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자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 밖에 다른 것들을 학자들은 희생시킬 수 있다. 가정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자신의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 학자들이 무관심할 수 있다. 학자들 속에 숨겨진 죄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Malik, 1982: 36-37).

그러면 대학과 교회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는가 물어보자. 겉으로 드러난 기능을 보면 갈등이 없어 보인다.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관이고 교회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기관이다. 만일 두 기관이 상호 기능을 간섭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갈등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과 대학 구성원의 활동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가? 여기에도 어떤 갈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며 성도의 삶을 함께 나누는 일은 같은 일이 아닐뿐더러 혹시 대학 안에서 교회처럼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을 갖는다 하더라도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두 공동체 소속으로 인해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조직이나 제도, 구성원들의 활동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갈등을 볼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교회라는 조직과 대학이란 조직, 그리고 두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의

활동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두 공동체에 소속되어 두 조직을 오간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갈등은 어떤 동일한 문제나 이해(利害) 관계가 개입할 때 발생한다. 그런데 대학과 교회는 다른 목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회 속에서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두 공동체 소속 문제는 이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 학자가 두 공동체에 소속됨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학문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가 구성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물어 보자. 이 물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학자의 정체성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IV. 신앙 공동체와 학문 공동체

1. 구성원

공동체는 무엇보다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공동체마다 다르다. 교회 구성원이 되는 과정에는 인종, 성, 재산 소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신앙 고백이 교회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데 유일한 조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비 학습 과정을 거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죄와 율법과 죽음에서 건져주신 구주이며 삶 전체의 주로 알고 믿으며 공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세례는 한 사람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가시적인 표시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사도신경』(Symbolum Apostolorum)은 원래 세례를 받을 때 문답 내용을 원형으로 삼는다(Kelly, 1981: 368-397; Luba, 1969). ‘신경’이라 번역되는 ‘숨볼름’(symbolum)은 바깥사람을 안으로 통과시킬 때 사용하는 일종의 ‘암호’이다. 이 암호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된다. 그러므로 학문 공동체와는 달리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적어도 사도신경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은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며, 성령님이신 것을 고백한다. 이 고백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은 아버

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며, 아들 예수는 우리 주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의 되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시고 성도들의 사귀를 가능하게 하시며 몸의 부활과 죄 사함과 영원한 삶을 가능하게 하실 분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된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구속주가 되시며, 죄 사함과 몸의 부활을 통하여 만물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의 조건이 되는 삼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인생관을 형성하여 생각과 의도와 감정과 판단과 일상 삶에서의 모든 행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삼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서는 그로부터 따라오는 다음과 같은 믿음을 기대할 수 있다.

-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에 한정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초자연주의)
- 인간을 포함해서 존재하는 사물들이나 궁극적이고 실제적인 가치들은 개인의 판단이나 생각과 독립해서 존재한다는 믿음(실재론)
-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어떤 삶의 영역이나 계기, 삶의 내용이나 형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는 믿음(반세속주의)
- 그럼에도 만물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과 이웃과 주변 자연에 대해서 반응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유로운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믿음(인격주의)
- 이 세상이 전체가 아니라 앞으로 올 세계가 있다는 믿음(반현세주의)
- 사람의 마음속과 사람들이 구축한 질서와 구조 속에서도 죄와 악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으리라는 믿음(비관주의)
- 그럼에도 창조주가 되시고 구주 되시며, 심판주 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삼위 한 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낙관주의)

이러한 믿음을 암묵적으로 가진 신앙 공동체는 학문 공동체와 분명히 구별된다. 그

럼에도 이러한 믿음은 학문 공동체에서 이론을 구상하고, 평가하고 이론을 적용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된 사람들은 공동체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점에서 모두 공통적이다. 여기에는 학위와 같은 조건이나 능력의 검증이나 결과물의 산출이 요구되지 않는다. 오직 입으로, 마음으로 삼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 곧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고백과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거하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세계를 통치하시는 아들에 대한 고백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만일 자격 요건이 있다면, 유일한 자격 요건으로 요구된다. 여기에는 빈부귀천도, 남녀노소나 학식 여부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일원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며 성령의 전으로 기록하게 지음을 받는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이나 인문학, 심지어는 신학 학위마저도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과 무관하다. 삼위 한 분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세례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된 이후 이 땅에서 사는 삶 전체가 루터가 말한 ‘영적 시련’ 또는 ‘영적 투쟁’(tentatio, Anfechtung)의 과정이라 보면 이 가운데서의 배움과 훈련이 쉬임 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상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투쟁이고 영적 시련의 삶이기 때문에 루터가 말하듯이 기도(oratio)와 말씀 묵상(meditatio)이 영적 투쟁과 시련(tentatio)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빠질 수 없다(Luther, 1539: 658-661).

학문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 분야에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증명하는 일이 요구된다. 당사자는 석, 박사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완성하며 구두시험을 통과하여 학위를 마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문에 통용되는 규칙을 준수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깔려 있다.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쓰는 일은 규칙 준수를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그러한 능력과 의도가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일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런 능력의 구비 여부를 테스트하고 확증할 책임은 학문 공동체 안에서 후속 세대를 키워내는 선배 학자들에게 달려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학문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

람에게 특별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지 않지만 특히 세속화된 현대 대학의 체계 안에서는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것이 암묵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가장 두드러진 것이 어떤 주제, 어떤 문제를 다루더라도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려는 태도가 오늘 학문 공동체안의 일반적 경향이다. 철학사 시간이나 종교학, 또는 종교 사회학이나 종교 심리학 시간에는 ‘하나님’ 또는 ‘신’이라는 단어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외 학문 분야에서는 혹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나 문제일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etsi Deus non daretur) 문제를 다루고 생각을 이어가는 것이 현재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한 태도를 일컬어 사람들은 ‘방법론적 무신론’(methodological atheism)이라 부른다. ‘방법론적 무신론’은 모든 일,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교회와 종교적인 것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세속주의’가 깔려 있다. 혹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연구와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비교종교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다시 말해, 현대의 학문적 방법의 범위 안에서 토의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게 되었다. 신학이 들어설 자리가 학문 공동체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Hauerwas, 2007; Shanks, 2007). 영적 실체를 직접 경험을 통해서, 삶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고, 체험하기보다 현대 학문의 좁은 틀 안에서 학문적 논의 대상으로, 가능한 객관적으로 다루게 된다. 말하자면 ‘자연’의 범위와 한계 안에서 ‘초자연’을 다루는 셈이다. 이것을 일컬어 철학자들은 ‘자연주의’(naturalism)라고 부른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자연밖에 없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학문적 태도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함축된다. 자연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인간의 개념과 상상력의 범위와 한계 안에서, 또는 사회적 구성이나 사회적 산물, 또는 권력 관계에 의한 구성이나 생산으로 보려는 관점이 오늘 학문 세계에 우세하다. 이것을 일컬어 사람들은 ‘반실재론’(anti-realism) 또는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라 부른다. 현대 학문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관으로 알빈 플랜팅가가 ‘자연주의’, ‘계몽주의적 인본주의’, ‘상대주의’ 등을 거론하는 것은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Plantinga, 2001: 117-161). 학문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하고자 하는 사람은 암묵적으로 이러한 세계관에 동의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두 공동체 소속 문제를 생각할 때 이 점을 간과할 수 없다.

2. 공동체에 통용되는 일정한 놀이 규칙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거나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할 때 각각 두 공동체에 통용되는 규칙들이 있다(Huizinga, 1950). 이 점은 마치 축구 규칙이 축구를 구성하고 바둑의 규칙이 바둑을 구성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학문 공동체를 구성하는 놀이 규칙은 어떤 것이 되겠는가? 내가 가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모든 연구는 진실된 것, 참된 것만을 추구하며 거짓이나 오류를 발견할 때는 그것을 들추어내어야 한다(진리 추구의 규칙).
- 어떤 주장을 할 때나 증거를 제시할 때는 자신의 발견과 연구에 토대를 두어야 하며 타인의 생각이나 글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거를 밝혀야 한다(정직성의 규칙).
- 타인을 설득할 때는 주장과 근거를 연결 짓는 논증 방법이나 사실 제시를 통해야 한다(증거의 규칙).
- 타인의 글을 읽을 때나 발표를 들을 때 그가 오직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고 믿어야 한다(진실성 추정의 규칙).
- 연구 결과가 학자 자신이나 타인에게 다 같이 공동선을 가져오기를 기대하는 범위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공동선의 규칙).

학문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이 규칙들의 총합을 나는 ‘학문의 윤리’(the ethics of scholarship)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것들은 학문의 각 분야에 고유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과는 구별된다. 방법론은 그것 없이는 원하는 지식 추구하고 지식 발견이 불가능한 규칙들의 총합이라면 학문의 윤리는 그것 없이는 학문 공동체의 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규칙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학문을 하자면 이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학문이라는 놀이에 참여할 수 없다.

신앙 공동체에도 공동체 일원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가장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리스도인이 삶을 통해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마 22:37-40). 그러나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이것이 공동체 되게 하는 규칙을 찾는다면 이 것 밖에도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에베소서 4장의 경우를 보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보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학자이든, 교사이든, 그가 농부든, 주부이든 간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1-3)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엡 4:1)라고 바울은 권한다.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행해야 할 것들을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권고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목록들을 열거하기에 앞서 바울은 ‘삶의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방인처럼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엡 4:17)고 말한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까닭을 바울은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엡 4:18)으로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지적인 측면, 곧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무식한 것과 의지적 측면, 곧 알면서도 마음이 굳어져서 원하지 않게 됨을 생명에서 떠난 이유로 바울은 들고 있다. 바른 삶을 위해서 사실 이 두 측면이 다 중요하다. 모르고서는 제대로 행할 수 없으므로 제대로 알고자 애써야 한다. 안다고 해도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므로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지성과 의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중요하다. 감성의 중요성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엡 4:19)라고 말한다. 감각이 없으면 아픈지, 아프지 않는지를 구별할 수 없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냄새 나는 것과 냄새가 좋은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엡 4:19)라고 바울은 말한다. 바울의 권고는 그리스도인 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세 요소를 떠나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원하고 무엇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느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세 요소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 만일 성도가 “그리스

도 안에서 배운”(엡 4:19) 사람이면,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엡 4:20) 사람이면 이방인처럼 허망하게 행동할 수 없다.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씩 열거하고 있다(엡 4:25-32).

첫째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다. 둘째가 분을 내지 말고, 혹시 분을 내더라도 오래 품지 말라는 것이다. 세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바울은 권한다. 네 번째가 서로 친절 하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가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다. 여섯 번째가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바울은 권한다. 일곱 번째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여덟 번째가 모든 음행을 버리라는 것이다. 아홉 번째가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것이다. 열 번째가 더러운 말(이것은 순서로는 앞에 나왔으나 내용으로는 뒤에 오는 것들과 합할 수 있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일 말을 하면 오히려 남에게 덕을 세우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바울은 권한다.

십계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 서로 친절히 하라 (3) 불쌍히 여기라 (4) 서로 용서하라 (5) 서로 사랑하라 (6) 음행을 버리라는 적극적인 명령과 함께 (7) 분을 내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10)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금지 사항들을 바울은 열거한다. 이것들을 만일 규칙이라 볼 수 있다면 이 규칙들의 합을 우리는 앞에서 말한 ‘학문의 윤리’와 유비적으로 ‘신앙의 윤리’(the ethics of faith)라고 부를 수 있다.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을 하고 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엡 5:8-9)

앞에서 말한 열 가지를 바울이 권한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빛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거두는 열매를 다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모든 착함(선함)과 의로움(공의, 정의, 공정)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의 소속의 변화, 존재의 변화 없이는 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학자도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소속될 때 소속 변경, 곧 존재의 변화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저러한 삶의 규칙들이다. 이러한 규칙, 곧 '신앙의 윤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공동체에 대해서 '구성적'이다. 최소한 여기 열거한 열 가지의 규칙이 결여된다면 삼위 한 분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공동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학문 공동체를 구성하는 규칙들은 지식을 발견하고 발표하고 서로 나누는 과정들과 관계된 것들이다. 만일 이것들이 결여되어 있다면 지식을 통해 매개되는 학문 공동체가 존립할 수 없다. 반면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는 규칙들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윤리적 관계에 관한 것들로 만일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신앙 공동체의 면모를 갖출 수가 없다.

3. 공동체의 목적

학문 공동체는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데 그 존재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무엇이 참된가, 무엇이 사실이며 진실인가를 드러내고 그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것을 삶의 현실에 적용하는 과제가 학문 공동체에 주어져 있다. 이와 달리, 이와 구별해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신앙 공동체는 에베소서 1:1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엡 1:12)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엡 2:10)이다.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에 세워진 공동체이고, 믿음과 소망, 사랑의 공동체이며, 진실을 행하고 선을 실천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목적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진실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할 공동체이다. 만일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 공동체는 존립의 이유를 잃어버린다.

신앙 공동체나 학문 공동체가 고유의 목적, 고유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지 않고 선한 일과 무관한 일을 할 수 있고 학문 공동체가 '진리 추구' 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모든 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삶의 길을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욕구충족의 수단이요, 현실적 삶에서의 위로의 원천으로만 기능한다면 신앙 공동체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

학과 같은 학문 공동체도 만일 진리 추구하고 무관하게 존재한다면 이러한 공동체도 그 고유의 기능을 잃었다고 할 것이다. 오늘 대학 안에서나 연구 관련 기관에서 ‘진리’라는 단어는 사실상 사라졌다. 대신 ‘지식’이란 용어가 지배한다. 오늘의 사회를 ‘지식 사회’라 부르고 오늘의 경제를 ‘지식 경제’라 부르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 변화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문의 기능을 참된 것, 새로운 것, 모르던 것을 드러내는 활동으로 본 전통적 관점에서 경제적 부를 창출하여 인간의 복지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의 경우는 학문 자체, 지식 자체, 진리 자체에 가치를 두는 관점이라면 뒤의 경우는 유용성에 가치를 두는 공리주의적 관점이다. 만일 철저하게 공리주의적 관점을 취한다면 오늘 많은 학문들은 유용한 지식의 영역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마이클 폴라니는 『과학과 복지』란 글에서 현대 학문에 내재된 이러한 경향을 이미 오래 전에 지적하였다(Polanyi, 1998: 83-105).

이런 경우, 학문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는 제 기능(proper function)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는 이 때 허물어지고,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겉으로만, 또는 일부만 작동할 뿐 실제 그것의 고유 기능의 수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 가정, 국가, 기업, 학교, 교회 등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고 제도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고유의 기능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은 언제나 구성원들 속에 내재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기관들에 적용되는 기능이나 규칙들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진리 추구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학문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진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회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서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고, 몸으로 드러내고, 세상을 섬겨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진리를 찾고 발견하고, 진리를 삶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그리스도인은 무관심할 수 없다. 더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얻은 지식이 그리스도인의 학문적 지식에 무관할 수 없다(van der Kooij: 1997, 98-116). 다른 한편, 신앙 공동체가 대학이나 연구소처럼 연구 기능을 지닌 공동체는 아니라고 해도 참된 것이면 그것이 지식이든 사람이든 현실이든 무관심할 수가 없다. 참된 것을 찾고 드러내고 참된 것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것에 그리스도인은 관심을 두게 된다. 그 바탕에는 삼위한 분 하나님만이 진리 자체이며 진리의 근원이며 토대라는 믿음이 놓여 있다. 학문

공동체 안에서 발견된 진리 주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학자는 과연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이 삶을 열어주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것인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참된 것을 말하고 참을 실천함(poiein ten aletheian) (요 3:21; 요일 1:6)으로 살아야 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4. 공동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가시적 조건

공동체를 구성하는 조건 가운데 네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신앙 공동체나 학문 공동체가 다 같이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학문 공동체는 책과 텍스트, 도구와 기구, 대학이나 연구소 기관이나 건물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물질적 조건의 매개 없이는 학자들의 지적인 활동이 가능하지 않다. 대학이나 연구소가 공간적으로, 물적으로, 인적으로 학문 공동체를 한 곳에 모으는 구실을 하는가 하면 도구와 기구는 해당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고 전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책과 텍스트를 과거와 현재, 국내와 국외 등 연구자들의 생각과 결과를 이어주는 통로가 된다. 특히 책과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고 쓰고 비판하며 다시 쓰는 활동은 학문하는 작업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학회, 전문 저널, 심포지엄, 세미나, 출판사, 서점 등도 학문을 소통시키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것들 없이는, 지식은 단지 개인적 차원에 머물 뿐 공공성과 공동성을 띠지 못한다. 신앙 공동체도 성경책을 위시해서 신앙의 서적들과 기본 텍스트, 교회라는 조직, 건물 등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귀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서로 위로하고 권면할 때 가시적인 몸이 개입된다. 신앙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이면서도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방식으로 공동체가 유지되고, 활성화되고, 성장한다.

지금까지 나는 신앙 공동체와 학문 공동체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1) 구성원 2) 놀이 규칙 3) 공동체의 목적 4) 공동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가시적 조건을 열거하였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신앙 공동체와 학문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자신이 믿는 신앙을 타인에게 전도하며, 그것을 삶으로, 몸으로 세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신앙 공동체의 전통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신앙 공동체는 존립하고 전승된다. 마찬가지로 학문 공동체도 해당 학문의 주요 주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며 논문을 쓰고 서로 비판적으로 토의하

는 가운데 공동체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을 하게 된다.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학문을 한다거나 모두 고유의 공동체에 소속된다. 그리스도인 학자는 이 점에서 특이하다. 한편으로는 신앙 공동체에 소속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 공동체에 소속하기 때문이다.

V. 학문 공동체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학자의 접점과 갈등 지점

지금까지 나는 ‘그리스도인 학자’가 누구인지 일단 정의한 다음 그리스도인 학자는 두 공동체에 소속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그런데 세속 학문과 완전히 구별되고 독립적인 ‘기독교 학문’이 만일 가능하고, 그것이 현실로 주어져 있다면 두 공동체 소속은 문제 상황으로 등장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학문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규모의 수도 공동체나 신학대학원 같은 곳에서 일정한 학문적 주제를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다룬다면 이와 같은 꿈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삶의 조건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두 공동체를 오가면서 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논의를 이어가 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과제는 두 공동체 소속이 왜 문제가 되며, 문제의 소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앙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학문 공동체에 관여할 때, 만일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지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방금 열거했던 공동체 구성의 네 조건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네 번째 조건으로 들었던 신앙생활을 하거나 학문할 때 매개로 개입되는 물질적 조건을 먼저 생각해 보자. 도서관과 실험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인이거나 비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공유한다. 이 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유무는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학문을 추구하는 목적이 진리라는 점에도 아마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학문의 놀이에 적용되는 규칙을 수용하는 점에서도 신앙의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 학자든 비기독교학자든 간에 거의 동일하게 앞에서 말한 규칙을 승인하고 알건 모르건 그 규칙들을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따르려고 애쓴다. 학문 공동체에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구성원의 신앙 유무 차이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학문을 생산하고 전수하는 학자이면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외연을 넓히면 미래의 학자로 기대할 수 있는 학생과 책을 통해 지식 공동체에 관여하는 독자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무엇이 실재이며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고자 하고 지적 욕구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필요할 뿐이다.

제도와 활동과 공동체 구성의 조건을 볼 때 우리는 두 공동체 소속에서 오는 어떤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의 소지는 어디 있는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 조건들을 다시 관찰해 보기로 해 보자.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다시 학문 공동체 구성의 네 번째 조건을 보자. 책과 텍스트, 그것을 담아 둔 도서관, 실험실, 그리고 나아가 저널, 학회, 심포지엄, 세미나, 출판사 등 학문 공동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조건들이 있다. 이 조건을 누가 움직이는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의 이념이나 이론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이 특정 학술지의 논문 심사와 편집과 출판에 관여한다. 심포지엄에 학자를 초대할 때, 책을 출판할 때, 학회의 방향과 성격, 출판사의 이념 등이 작용한다. 도서관에서, 특정 연구소에서, 또는 개인이 책을 구입할 때, 책을 선정할 때도 선정하는 배경과 이념이 작용한다. ‘물질적 조건’이라 부른 조건들은 학자 간의 긴장, 학과 간의 투쟁, 이런 것들이 배후에 작용한다. 푸코가 말하는 일종의 ‘담론 집단’(la société du discours)의 ‘배제와 포함의 규칙’이 여기에 작용한다(Foucault, 1971: 10 이하).

그렇다면 학문 공동체의 물질적 조건을 내용으로 들어가 보았을 때는 학문 공동체가 전혀 중립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학문 공동체는 일정한 권력 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이러한 권력 관계를 형성하는 배경에는 세계관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철저하게 맑스주의적 관점에 쓴 논문이 예컨대 현상학 잡지에 실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여성주의적 입장이나 포스트-식민주의적 입장에서 쓴 논문은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철저하게 유신론적 입장에서 쓴 논문이 무신론적 입장을 표방하는 철학 잡지에 실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여성주의나 맑스주의 등은 자유주의 사회의 다원주의 원칙 아래서 학계에서 공인되면서도 기독교 유신론적 입장에서 학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학계가 부정적인 입장임을 마스든이 불만스럽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된다(Marsden, 1997: 13-24). 학문 공동체는 그 전체로서는 다른 공동체(예컨대 기업이나 가정, 동창

회)와 구별되는 특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다른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투쟁과 반목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곳이다. 만일 이렇게 학문의 현실적 상황을 실제 그 안에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세계관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그리스도인 학자의 경우, 자신이 속한 학문 분야가 현재 처해 있는 영적 투쟁 상황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할지 일단 고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 공동체를 규제하는 놀이 규칙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나는 이 규칙들의 총합을 ‘학문의 윤리’라고 불렀다. ‘윤리’라 부른 것은 학문 놀이에 적용되는 규칙들이 존중되거나 위반될 수 있다는 뜻을 함축한다. 첫 번째 규칙(진리 추구의 규칙)은 두 번째 놀이 규칙 ‘정직성의 규칙’과 학문의 목적적 가치인 ‘진리 추구’와 관련해서 보더라도 반대 상황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표절의 경우처럼 타인의 아이디어를 이용하거나 변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을 일일이 전거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떤 의미에서 학문하는 것 자체가 타인의 글과 생각을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어떤 생각을 표현할 때 설사 그것이 직접 인용할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책에서 읽었거나 들었거나 한 것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학문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거를 밝히고 정확하게 인용하고 자신의 말로, 자신의 표현으로 주장을 펼치고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학문함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 학자인 경우는 단순히 학문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규칙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는 규칙의 통제를 받는다 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학문 활동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안에 거주하는 피조물들에게 주신 고유한 활동이고 그러한 활동이 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면 진리 추구의 규칙과 정직성의 규칙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학자가 마땅히 할 일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타인을 설득할 때는 주장과 근거를 연결 짓는 논증 방법이나 사실 제시를 증거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상황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학문적 지식은 ‘근거 제시’(logon didonai)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지식과 구별된다. 만일 어떤 지식이 근거가 희박하고 신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지식으로서의 주장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문적 지식도 충분한 근거와 논리적 뒷받침이 결여될 수 있고 단순한 예증이나 수사로 타인을 설득할 수 있다. 학문적 지식을 학자들이 사실이나 논증을 통해서 제시하기보다 수사(rhetoric)를 통해 포장해서 사람의 감정을 쉽게 움직일 수 있다. 세 번째 ‘증거의 규칙’은 그러므로 실제로 존중되지 않을 수 있다. 학계에서 간혹 일어나는 사건을 보더라도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거짓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증거 조작이 가능하고, 증거로서 가치가 약한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 그리스도인 학자는 좀 더 분명한 증거와 사실 확증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 못지않게 이념과 생각, 가치와 세계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은 생각으로 움직이고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 생각은 현실을 만들 수 있고 현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생각에 앞서 눈으로 보고, 듣고, 몸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세계 또한 생각의 세계 밖에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만일 생각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생각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은 물질세계와 우리의 육신과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사물 세계를 온전히 인정한다. 예수의 성육신과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세계를 연구하고, 직접 보고 만진 것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생각과 이념, 개념과 상상력 등이 학문적 지식에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경험, 증거, 실제 확인 등이 또한 중요하다. 그리스도인 학자는 이론을 중시하고 세계관을 중시하지만 이보다, 이에 앞서 무엇보다도 사실 확인, 현장 실사, 경험과 관찰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근거가 바로 성육신과 부활이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물질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나 단순히 이데올로기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수용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 요구나 사실 확증 등 경험을 중시하는 편에 그리스도인 학자는 설 수 있다(Noll, 2011: 52). 그리스도의 첫 제자들은 예수를 만난 뒤 예수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요 1:45, 46)라고 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증거한다”고 말하였다(요일 1:1, 3).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눈으로 본 목격자임을 누누이 힘주어 말했다(행 2:32; 3:15). 예수를 만난 뒤, 그들은 철저히 경험주의자가 되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그들은 눈 감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분명히 환원주의자는 아니었기 때

문이다. 플랜팅가처럼 ‘추론적 증거주의’를 거부한다고 해도 경험적 증거나 경험적 확증을 무시할 수 없다(Plantinga, 2000: 67-92).

이제 네 번째 ‘진실성 추정의 규칙’을 살펴보자. ‘진실성 추정의 규칙’은 학자가 하는 말이나 쓴 글이 지어낸 말이나 거짓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신뢰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학문 공동체는 단단한 공동체로 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학자들 가운데도 참된 것을 말하기보다 자신의 추측과 상상력을 기초로 이론의 내세우거나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맑시즘이나 지식 사회학에서 주장하듯이 지식은 사회 계층이나 계급의식을 반영한다면 학자의 이론을 수용하고 다루는 방식은 ‘진실성 추정의 규칙’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혐의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식 추구의 으뜸은 혐의 두기, 의심하기란 주장이 가능하다.

혐의 두기, 또는 ‘혐의의 해석학’(Hermeneutics of Suspicion)은 지난 20세기 후반 들어 인문사회 관련 학계에서 유행을 하게 된 일종의 학문적 태도요, 학문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뵐 리피르의 지적처럼 오늘의 혐의의 해석학 배후에는 ‘세 대가들’ 또는 ‘세 스승들’이 있다. 맑스, 니체, 프로이트가 곧 그들이다. 예컨대 맑스는 의식 중심으로, 생각 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존재를 해석하던 것을 사회 경제적 물질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의식을 이해하고 생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앎과 이해의 방식을 바꾸었다. 니체는 전통적인 인식론과 해석학을 거부하고 관점주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힘에 대한 의지’의 관점으로 읽고 해석하는 방식의 해석학을 제안한다. 프로이트는 자아 중심의 사고, 의식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무의식과 쾌락 원리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읽는 방식을 제안한다. 세 경우, 모두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믿고 알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방식과는 달리 그 배후에, 보다 더 깊은 층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힘과 생각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것을 들추어내었다. 따라서 어떤 말이나 주장, 어떤 이론의 경우에도 그것의 액면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보다는 일단 혐의의 눈으로 사물과 인간과 사태를 보는 방식을 이들은 후대 지식인과 학자들에게 심어주었다.

‘혐의의 해석학’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 토론이 되어야 할 주제이다. 맑스와 니체와 프로이트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깨우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세기 신학자들이나 기독교 사상가들이 이들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메를드 웨스트팔이 지적한 것처럼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들의 글을 읽을 수 있다(Westphal, 1993).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일관된 지적 태도로, 그리스도인 학자의 포괄적인 세계관으로 수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길게 논증할 필요가 없다. 혐의의 해석학을 때로는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학문 공동체는 오히려 ‘신뢰의 해석학’을 토대로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고, 논문을 쓰고 가르칠 수 있다. 신뢰는 인간 삶의 근본 토대일 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와 학문 공동체를 지탱하게 해 주는 근본 토대이다. 남의 저서를 읽고, 해석하거나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고 판단할 때, 모든 경우, 혐의와 불신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참된 연구와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 학자는 학문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 학문 행위를 통해서 신뢰를 심고 신뢰의 해석학을 몸으로 증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가 학자 자신이나 타인에게 다 같이 공동선을 가져오기를 기대하는 범위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는 “공동선의 규칙”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 규칙은 학문하는 동기가 무엇이며 결국 학문은 무엇을 통해 기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시 “현실적으로” 볼 때 모든 학자들이 공동선의 추구를 위해서 학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특정한 연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선보다 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도 연구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문제들은 학문이 과연 진리 추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과 직결된다. 앞에서 내가 구성한 학문의 놀이 규칙이 학문의 진리 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놀이 규칙이라면 이 규칙들이 의심되고 또 이 규칙들이 위반되는 상황을 학문 공동체 안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문 공동체 안에 어떠한 놀이 규칙도 없다고 해야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학문 활동이 진리 추구와 거리가 매우 멀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진실이며 그래서 무엇을 따르면서 살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기보다는 주어진 체제와 제도 속에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 범위 안에서, 주어진 예산과 연구비 안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영향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학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나는 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참된 것을 발견하고 증언하고 참된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진실된 노력 없이는 학문 공동체는 마치 ‘죽은 자들의 모임’과 비슷하게 아무런 생산적인 작업을 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아니,

무엇을 산출해도 그것이 공동체의 삶을 살리고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역시 학문 공동체에 고유의 기능이 있고 고유의 존재 의의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일일 것이다.

앞에서 든 다른 조건들보다는 바로 이 점이 나는 그리스도인 학자와 비그리스도인 학자 사이의 접점과 갈등을 찾아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학문 놀이의 규칙을 지키면서 학문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탱해야 할 이유는 진실/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증언하며 가르치고 보다 나은 진실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지적 추구와 그 결과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부와 권력의 수단이 될 수 있을지라도 지적 추구 자체는 언제나 ‘참된 것’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 학자는 부인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학자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분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닮게 지었으므로 우리에게는 그 분으로 향한 진리의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사물들의 진리도 그 사물들을 지으시고 일정한 질서와 구조를 부여하신 분이 진리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발견하고자 하면 결국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학자들도 이 진리 발견에 참여하며 참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부분적인 진리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기뻐하고 신자나 불신자들이 함께 그 결과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C.S. 루이스가 『전시의 학문』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인들은 신전(Pantheon)뿐 아니라 추도 연설도 남겼습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곤충들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녀석들은 물질적 부와 안전한 보급자리를 먼저 추구하고 그 보상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포위된 도시에 서도 수학 공리를 내놓고, 사형수 감방에서 형이상학적 논증을 펴고, 교수대를 두고 농담하고, 퀘백 성채로 진군하면서 새로 지은 시를 토론하고, 테르모필레에서도 머리를 빗었습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루이스, 2008: 40).

결국 문제는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이다(Dooyeweerd, 1934: 30). 그리스도인 학자는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이든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든 진리를 통해 얻는 자유를 추구하는 인격적 존재들이다. 두 공동체 구성 주체가 각각 다른 입회 조건(학위와 세례)과

다른 놀이 규칙(학문의 놀이 규칙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들), 그리고 다른 물적 조건(예컨대 대학 연구실과 강의실과 교회 예배당이나 성경 공부)에 처해 있지만 동일한 인격적 주체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도,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신앙도 동일한 인격적 주체의 지식이고 신앙이다. 어떤 학문, 어떤 지식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물음과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 동떨어질 수 없다. 이 세계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며 비록 죄로 인해 훼손된 세계라 하더라도 이 세계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오직 물질만이 세계와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유물론)이라거나 나에게 자유 의지가 없거나(결정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무신론) 이 세계는 완전히 인간 정신의 산물이고 어떠한 실재성도 없거나(반실재론) 하는 이론에 토대를 둔 철학을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학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일종의 영적 투쟁이 존재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일찍이 구별했던 ‘하나님의 도시’(civitas Dei)와 ‘지상의 도시’(civitas terrena)는 대학과 교회 공동체의 구별이 아니라 대학이든 교회가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태도와 방향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학자는 ‘하나님의 도시’에 속한 삶의 방향을 지니고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학문 공동체인 대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사람일 것이다.

VI. 결론: 학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산다는 것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신앙 공동체와 학문 공동체를 오가며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 학자의 삶을 간략하게 끝으로 생각해 보자. 신앙 공동체와 학문 공동체, 곧 교회와 대학을 오가면서 살아야 하는 문제는 제도적 관점이나 활동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면서 학자인 사람에게 큰 문제로 등장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의미의 그리스도인 학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답게 학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제도나 활동 자체의 차원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공동체 구성 조건을 보았을 때 그 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의 소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학문 공동체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은 그 공동체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시키며 진리

추구에 뜻을 같이 하며 놀이 규칙을 지키고 물적 조건들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비그리스도인과 차이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규칙들은 위반될 수 있고 학문 공동체의 목적이 왜곡될 수 있으며 물적 조건을 이루는 것들은 일종의 권력의 장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사명은 비그리스도인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익숙한 기독교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학문 공동체를 볼 때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활동에 크게 차이가 없다. 하지만 ‘구속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학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구속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 학자에게는 학문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대로 기능하도록 바로 세워야 할 과제가 있음이 드러난다. 진리 추구가 왜곡되고 학문함의 놀이 규칙이 위반되며 학문 공동체의 존재가 교란되는 현실에서 참된 것을 발견하고 거짓을 폭로하며 놀이 규칙을 지키고 학문 공동체를 제대로 보존하고 회복할 임무가 그리스도인 학자에게 있다. 그리스도인은 학자로 살든, 상인으로 살든, 예술가로 살든, 노동자로 살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살든 간에, 본래의 온전한 기능(proper function)이 왜곡된 하나님의 세계를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회복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그리스도인 학자의 임무는 학자 고유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통해 실현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 학자는 무엇보다 지적인 작업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에 순종하는 공동체여야 할 학문 세계를 보존하고 새롭게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께서 직접 지시고 고통 받으심으로 옛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새롭게 회복시킨 사건이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며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가 다시 들어선 사건이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학문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할 과제가 있다. 학자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 학자로 온전히 사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수행하는 지적 작업을 통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왜곡시킨 죄와 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된 것을 발견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그리스도인 학자가, 학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그

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학자를 내용적으로 좀 더 폭넓게 규정할 수 있는 정의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좌절이 있고 실패가 따르지만 그럼에도 소망과 믿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지적 작업을 해 가는 그리스도인 학자에게 기쁨과 평안도 함께 주어질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영안 (2010). “그리스도인의 지적 추구의 의미.” 『신앙과 학문』. 41. 7-30.
- Dooyeweerd, Herman (1934). *De Wijsbegerte der Wetsidee*. Bk 1. Amsterdam: H.J. Paris.
- Foucault, Michel (1971). *L'ordre du discours*. Paris: Gallimard.
- Fuller, Steve (2009). *The Sociology of Intellectual Life. The Career of the Mind in and around the Academy*. Los Angeles/London/New Dehli/Singapore/Washington DC: Sage.
- Hamilton, S. Michael (2001). “The Elusive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in: *Christian Scholar's Review*. XXXI:1. 13-21.
- Harbison, E. Harris (1956). *The Christian Scholar in the Age of the Reformation*.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 Hauerwas, Stanley (2007). *The State of the University. Academic Knowledges and the Knowledge of God*. Oxford: Blackwell.
- Huizinga, Johan (1950). *Homo Ludens. Proeve eener Bepaling van het Spelelement der Cultuur*. in: Johan Huizinga, *Verzamelde Werken*. V Cultuurgeschiedenis III. Haarlem: H.D. Tjeenk Willink & Zoon N.V..
- Kelly, J. N. D. (1981). *Early Christian Creeds*. (3rd ed., 1972) London/New York: Continuum.
- Lubac, Henri de (1969). *The Christian Faith An Essay on the Structure of the Apostles' Creed*. Translated by Brother Arnandez, F.S.C..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 Luther, Martin (1539). “Vorrede zum ersten Band der Wittenberger Ausgabe derdeutschen Schriften.” in: *Luthers Werke* (WA 50).
- Malik, Charles Habib (1982). *A Christian Critique of the University*. Downers Grove, Illinois: IVP.
- Noll, Mark A. (2011). *Jesus Christ and the Life of Mind*.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 Plantinga, Alvin (2000). *Warranted Christian Belief*.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Two Pillars of Christian Scholarship.” in: *Seeking Understanding The Stob Lecture, 1986-1998*.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17-161.
- Shanks, Andrew (2007). *The Other Calling. Theology. Intellectual Vocation and Truth* Oxford: Blackwell.
- Tertullian (1994). *The Prescription against Heretics*. in: A. Roberts & J. Donaldson. eds., *Ante-Nicene Fathers*. vol. 3. Peabody. Massachussets: Hendrickson.
- Van der Kooi, C. (1997). “Kennis van belang. Wetenschapsbeoefening in het licht van christelijke geloofskennis.” in: J.P. Verhoogt S. Griffioen & R. Fernhout(red.),

- Vinden & Zoeken. Het Bijzondere van de Vrije Universiteit.* Kampen: Kok.
- Westphal, Merold (1993). *Suspicion and Faith. The Religious Use of Modern Atheism.*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 Wolterstorff, Nicholas (2004). *Educating for Shalom.*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ABSTRACT

The Identity of Christian Scholars from the Perspective of Dual Membership Sharing between the Community of Faith and Academia

Young-Ahn Kang(Sogang University)

This paper, read as a keynote address at the 2013 Korea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larship Annual Conference held at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on May 11, 2013, raises a question concerning the dual membership of Christian scholars, sharing their life between the community of faith and academia. After trying to obtain a proper definition of Christian scholar as a scholar who does his or her scholarly works as a Christian, viz, a person who dies with Christ and is raised with Him and follows Him,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the place where two communities converge each other as well as diverge from each other. The communities, namely the community of faith and community of scholarship, viz., academia, have many convergent points, when they are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divine creation. They have divergent points when they were seen from the perspective of redemption. The essential thesis of this paper lies in a claim that divergent point could be found in scholar's heart, the orientation point of doing scholarship as well as of living the life of faith.

Key Words: Christian scholarship, Christian Scholar, Faith and Learning, Ethics of Scholarship, Ethics of Faith